

시냇물·흙담 어우러진 '자연속 쉼터'



화순 동복면 가수리

시인 김용재씨 시골집



전통문화 살아있는 가수리 장승·솟대가 마을 지킴이

동복면에서 7km가량 떨어져 있는 가수리(佳水里)는 우리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곳이다.

아랫마을인 하기마을(아랫가무래마을)에는 벽수(장승) 한 쌍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고, 윗마을인 상가마을(윗가무래마을)에는 짐대(솟대·사진) 5기가 세워져 있다.

밤나루를 다듬어 만든 벽수 물통에는 동방대 장군, 서방대장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마을을 지키고 질병과 도둑을 막아내는 마을의 수호신인 셈이다. 소 도둑이 밤새도록 도망간다고

간 것이 벽수 주위를 맴돌다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벽수제를 올린다. 짐대(솟대)는 높다란 소나무 장대위에 나무로 꺾은 오리를 만들어 올렸다. 마을 바깥을 바라보는 오리부리에는 대를 가늘게 조개 늘어뜨렸다. 새와 나무는 천상과 지상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구실을 한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짐대제를 지낸다.

200여 년 전인 1700년대 말마을에 원인 모를 불이 자주 나자 마을 사람들은 동네 앞산이 화기(火氣)를 품고 있다고 믿고 마을 어귀에 짐대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03년 향토문화유산 제 17호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김용재씨의 시골집 설경. 집앞 개울에서 동네 아낙이 빨래를 하고 있다.

◀군불을 지피고 있는 김용재씨. 무쇠 솔과 까맣게 그을음 앓은 아궁이가 정겹다.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시원스한비빔밥

위급 대리점 | 062)221-1786 | 1063)510-7351 | 062)2950-5800 | 062)227-1575

日食 미도 확장개업

그 좋은 상황의 순간 고생님에 맞아 상생으로 펼쳐지다.
매일 15주간을 맞이하며 일상 예술가 역할을 충실히.
증명되는 시장으로 고용 확장에 입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정당은 바쁜 그동안 일상 속에서 고생 많습니다.

교류의 원 기초 청탁한 일상

세미나·가족·집대모임 은 일상의 미도에서
● 20세~20대 50세 가족 ● 월세주차 50대 가족

● 월 대학원 실습드론 보트 구매 1회분과 후대 ●

광주광역시 광구역을 관리하는 경찰서 2-3동 | ☎ 234-0001